

불황 청소 끝냈기에, 주가에 더 이상 나쁠 것 없다는 관점으로 접근...

코멘터리

현대중공업의 적자기이던스와 1.3조원 유상증자 발표로...

① 26일 계획 발표 후, 27일 조선업종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마지막 영업일 일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관련 현대중공업 보고서에서 밝혔듯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단기에 크게 빠질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27일 현대중공업 주가는 29%나 하락했고, 빽바텀을 PBR 0.5배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당사가 기다리던 계단식 감익을 BIG2가 모두 토로했기 때문에, 또한 예상하기 어려웠던 추가 자본 조달까지 마쳤기에, 불황 청소를 끝낸 조선업종에 대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관점으로, 이제 좋아지는 부분에 주목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그 상세 내용은 후속 산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의 신조선가와 중고선가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② 마지막 클락슨의 선가 지수 발표에서 신조선가가 1P 오른 125P, 중고선가는 2P나 상승한 94P로 2017년을 마쳤습니다. 중고선은 벌크와 탱커 모두 동반 강세였고, 신조선가는 VLCC와 MR탱커 신조선가가 올라주어 긍정적입니다.

조선의 수주 소식들은

- ③ 한진중공업이 EXMAR로부터 최초로 대형 가스선 2척을 수주하며 시장에 진입합니다.
- ④ 그리스 Pistoilis는 8년만에 현대중공업에 수에즈막스 탱커를 발주했고, Central Shipping도 현대중공업에 VLCC 2척을 계약했습니다.
- ⑤ 대만 Yang Ming이 11,000teu 10척과 Feeder 10척~14척의 총 13.5억\$ 신조선들을 협의 중입니다.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모두가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조선사들의 2017년 수주 성적은...

⑥ 아래 표와 같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해양을 제외한, 현대중공업의 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모두 수주목표를 초과달성을 했다. BIG3와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합산도 수주목표 220억\$ 대비 92%를 달성해 체감보다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수주목표 자체가 낮아진 CAPA(BIG3의 190억\$, 5개사 합산 280억\$)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 자체를 넘겼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가집계된 조선사들의 2018년 수주목표는 CAPA 만큼이다.

12월 건설기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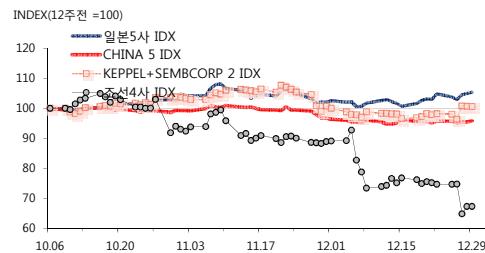
⑦ -6%로 부진했지만 기고효과 때문이었고, 월별 수출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2월은 슬로우했지만, 10월~11월의 수출이 각각 +26%, +55%로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4%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 조선4사의 2017년 수주 마무리: 목표에 준하게 달성했지만, CAPA보다는 크게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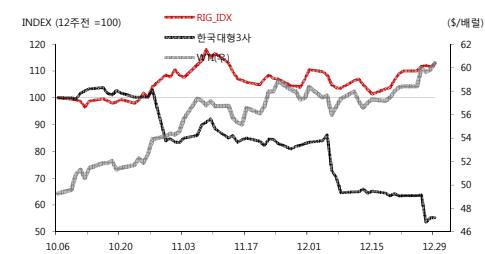
조선사	IR 수주(~10월)		2017년 마무리		수주목표	2018		
	선종	척수	척수	백만\$				
현대중공업	해양		262		262	1,600	16%	1,600
	LNG	5						
	+ FSRU							
	LPG	4						
	탱커	5						
HII 합	HTI 합	37	3,421		57	4,800	4,300	112% 6,800 42%
	컨서	4						
HS 합	탱커	17						
	HS 합	21	2,150		29	2,900	2,500	116% 3,400 17%
	현대중공업	58	5,571		86	7,700	6,800	113% 10,200 32%
현대미포조선	LPG							
	RORO	9						
	PC선	43		47				
	비나선	벌크	4					
현대미포 합	56	1,992		64	2,310	1,600	144%	3,000 30%
	삼성중공업	플랫폼	1,300	1	1,300			
	ELNG	1	2,500	1	2,500			
	LNG	4	600	5	800			
	+ FSRU							
	컨서	6	800	6	800			
	탱커	13	1,300	15	1,500			
SHI 합	LNG	25	6,500	28	6,900	6,500	106%	7,700 12%
	LNG-FSRU	2		4				
대우조선해양	컨서	5		5				
	탱커	14		15				
	특수선		1					
DSME 합		21	2,210	25	2,960	5,500	54%	6,000 예상 103%
BIG3		83	12,393	110	14,922	17,900	83%	22,100 48%
BIG3 + 삼호 + 미포		160	16,535	203	20,132	22,000	92%	28,500 42%

대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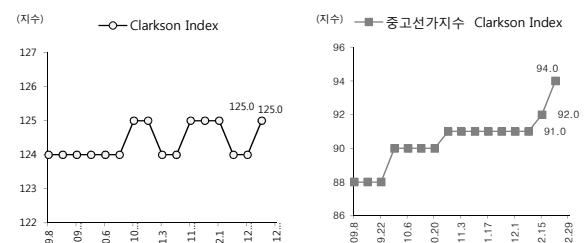
▶ 한/중/일/싱 주가 추세



▶ 유가와 RIG 플레이어



▶ 신조선가지수 1p 상승, 중고선가지수 2p 상승



▶ 조선업종 확바텀 VALUATION 제시: 매수 가능 범위 안팎

항목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12월05일 종가(주1)	12,600	153,000	98,800	18,200
12월06일 종가	8,960	143,500	94,800	17,700
12월의 최저점	7,000	96,900	77,700	13,900
최대 하락율	-44.4%	-36.7%	-21.4%	-23.6%
12월28일 종가	7,330	100,500	78,700	13,900
하락율	-41.8%	-34.3%	-20.3%	-23.6%
2017년 BPS	14,853	188,267	132,894	41,742
2018년 BPS(주2)	11,866	169,749	134,101	28,484
PBR				
17년말	0.49	0.53	0.59	0.33
18년말	0.62	0.59	0.59	0.49
2018년 BPS에서				
바텀 PBR	0.50	0.50	0.60	0.50
바텀 주가	5,900	84,900	80,500	14,200
종가 대비 하락폭 가능성	-20%	-16%	2%	2%
당장 HTS 등에서 확인 가능한 2017년 BPS에서				
바텀 PBR	0.50	0.50	0.60	0.40
바텀 주가	7,400	94,100	79,700	16,700
종가 대비 하락폭 가능성	1%	-6%	1%	20%
결론	6만원 중반에서	9만원 안팎	8만원이면 매수	1.5만원에서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선가 상승, RIG 매각

- △ 신조선가지수 2P 상승, 중고선가지수도 1P 상승하며 2017년 마무리
- △ Northern Drilling, 현대중공업의 시추선 2번째 옵션 행사로 매입

2018년 기대되는 해양

- ▲ BP의 Tortue FPSO, 발주 임박
- △ Barossa FPSO에 4개 솟리스트 곧 선정: 2Q18 FEED 시작

기계: 두산그룹 신용등급 하락

- ▼ 두산중공업, A급 신용도 상실
- ▽ 한신평, 두산엔진 신용등급 'BBB+'→'BBB' 강등

건설기계 4분기 수출 양호 → 4Q17 실적 호조 지속

12월 건설기계 수출 YoY -6%이지만, 4분기 전체는 +24%로 강세 지속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지수, 중고선가지수 모두 상승 마감

신조선가지수는 1p 상승한 125p 기록: VLCC 신조선가가 \$0.5m 오른 \$81.5m, MR탱커도 \$0.3m 상승한 \$33.8m 기록
중고선가지수도 2p나 상승한 94p 기록: 벌크는 파나막스~핸디 전선형, 탱커도 수에즈막스, 아프라막스가 상승하며 지수상승 견인

△ Northern Drilling, 현대중공업의 시추선 2번째 옵션 행사로 매입

- 아래 시추선 섹션 확인
- >> 이로써 현대중공업이 계약 취소 맞은 2기의 시추선에 대한 매각은 완료되었습니다.
- >> 4Q18 2천억원의 현금 유입, 그리고 2019년1월 이전까지 추가 2천억원의 현금유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_생산

▲ BP의 Tortue FPSO, 발주 임박

- Mauritania & Senegal의 Tortue FLNG 가스개발의 58억\$ phase1 입찰 경과는
- 업계에서는 이르면 12월15일까지 최종 EPCA 선정이 가능한 가운데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 중이고, BP는 2017년말에 결정할 것이라는 업데이트
- 2021년 LNG 수출 개시를 맞추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
- 현대중공업+KBR, Modec, 삼성중공업, SBM Offshore, SembCorp Marine 등도 경합 중, 또한 TechnipFMC도 중국야드(COSCO 추정)와 함께 참여 중
- SBM이 상당히 공격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 현대중공업+KBR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짐: 현대중공업 해양 공사 수주에 목마르고, KBR도 BP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 사업의 pre-FEED를 담당했기 때문
- 36개월의 빠듯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FEED와 별별로 상세설계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
- VLCC 크기의 1.3만톤 탑사이드 FPSO는: 500MCFD 가스와 20,000br 오일 생산 예정: 액화는 Golar의 GoFLNG가 담당키로해, 1호선이 2021년, 2호선이 2023년 가동 예정
- >> 이르면 2018년1월 현대중공업+KBR 컨소시엄의 수주 소식을 기대해봅니다.

(10월4주) △ BP의 Tortue FPSO, 이르면 연내 FEED 선정: HHI, SHI 경합

- 58억\$ BP의 Tortue 사업에서 FPSO 입찰 shortlist 업데이트: 한국의 현대중공업-KBR, 삼성중공업(단독), MODEC-SBM Offshore, 그리고 Sembcorp-Marine
- : 중국과 참여하는 설이 있지만 불명확
- FLNG는 Golar LNG에 2기를 건조해 2023년 가동하기로 결정
- FPSO는 천해지역에서 가동되며 가스를 FLNG 1기~2기에 파이프라인으로 전달 예정: Simple Design이 될 것
- 신조/기조 모두 제안 가능하며, EPCIC Lump-sum 계약
-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초 FEED사를 선정하고, EPC 계약은 2018년 하반기, FID는 2018년 9월 예정

(09월5주) △ Tortue FLNG의 pre-FEED 담당으로 CH2M 선정

(08월3주) △ BP의 아프리카 Tortue Floater 입찰 개시

(04월1주) △ Tortue FLNG: Fast-Track으로 진행

(17년03월2주) △ 아프리카 Tortue FLNG의 FEED 시작

△ Barossa FPSO에 4개 솟리스트 곧 선정: 2Q18 FEED 시작

- 7개사가 경합 중인 가운데, 곧 3~4개의 솟리스트를 추리고, 그 중에서 다시 2개사를 선정해 2018년에 Dual FEED 입찰을 부칠 예정
- 7개사 구성에서 애드 조합이 일부 밝혀짐: TechnipFMC+삼성중공업, Saipem+Bluewater, Fluor+COOEC, WorleParsons+인도, SBM Offshore+JGC, Modec, Bumi Armada
- Turnkey 발주(Saipem, TechnipFMC), Lease(SBM, Modec이 대표) 양쪽이 모두 가능하며,
- FEED를 2018년에 시작해, 3Q19에 FID 계획
- 최근 10억\$의 비용절감에 성공해, 이 프로젝트의 순익분기점은 \$40/br이하: 양호한 평가시후(4.3TCF)와 지속적인 최적화와 FPSO 디자인 단순화 덕분

(09월4주) △ ConocoPhillips, 북호주 Caldita-Barossa FEED 2사 선정 한창

- ConocoPhillips는 TechnipFMC, Saipem, Fluor, WorleParsons, SBM Offshore, Modec, Bumi Armada의 7개 그룹의 제안에 대한 평가에 한창
- pre-FEED는 Wood Group Mustang이 2015년 마쳤고, 내년에 FEED 경쟁을 치를 2개 회사를 선택 중: 2019년 FID, 2023년 가동
- 4만톤 구조물은 신조 vs 개조, 보유/리스 등의 스펙/계약형태도 미정: 3.7MTPA 가스와 1.5백만b/d condensate
- FEED 외에 이를 제작할 조선사와의 조합은 TechnipFMC+삼성중공업, Fluor+COOEC 정도만 시장에 알려짐
- ConocoPhillips와 함께 SK Energy 37.5%, Santos 25% 지분

(07월2주) △ Caldita-Barossa FEED 입찰 7월 → 2018년초 선정

(16년03월) △ 호주의 대형 가스 프로젝트들 현황

▷ McDermott과 CB&I 합병: 60억\$ 규모 딜

- McDermott이 CB&I와 60억\$ 규모 주식 교환으로 합병: 합병 후 McDermott 주주가 통합회사의 53%, CB&I 구주주가 47%를 보유
- 이로써 합병사는 Onshore와 Offshore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됨: 2018년 2분기 합병 완료



▶ 시추

△ Northern Drilling, 현대중공업의 시추선 2번째 옵션 행사로 매입

- 현대중공업의 Bollsta Dolphin, semi-submersible Rig을 \$400m에 매입하는 옵션을 행사: 1호선은 FOE, 2호선은 Seadrill의 계약취소
- Northern은 1차 계약금 \$200m를 지급하고, 나머지 \$200m는 인수 시 지급: Rig 발주금액은 \$750m으로 현대중공업은 53% 회수
- 2호선의 인도는 2019년 1월이지만, 그 이전에 옵션 계약이 체결될 경우 조기 인도를 받는 옵션도 있음
- John Fredriksen의 Nothern Drilling은, 추가로 Drilling asset을 매입해나가는 전략을 계속하겠다고 밝힘
- 특히 harsh-environment rig 시장은 명확한 회복 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자신

△ Total, Maersk의 XL Enhanced 책임릭 계약 연장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대형 책임릭 Maersk Intrepid를 옵션 중인 Total은 용선 기한을 196일 연장
- 이 Rig는 2014년 인도되어 4년간 \$550m(dayrate \$377천/일) 작업을 마침

▶ LNG & LNG 추진

△ Endesa의 LNG선 2척의 신조/옵션 제안서들 제출

- 11월말 Commercial Offer가 제출되었고, 2019년 인도물을 희망
- 제안은 신조와 기존선 모두에 해당
- Endesa는 LNG선 3척을 시장에서 구해오다가, Knutsen OAS의 옵션발주로 현대중공업 1척 발주에 그쳤다가, 올해 10월 다시 LNG선 2척 신조/옵션을 위해 시장에 나타남
>> 신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만, 인도가 2019년으로 다소 빠듯합니다.
- >> 기존선/건조선 흡수라도 시장 수급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11월2주) 스페인 Endesa, LNG선 2척 옵션 입찰

- 스페인 유틸리티사 Endesa는 2척의 LNG선을 시장에서 옵션 입찰: 입찰서 제한은 11월30일까지
- 옵션 기한은 7년 + 옵션 6년 + 6년이나, 5년 + 1년 + 1년, 또는 1년 + 1년 + 1년으로 자유롭게 제시 가능
- 2019년부터 LNG선 운영이 가능해야 해서, 선사들의 기준 tonnage이거나, 투기발주된 미용선 선박이 이 입찰을 노릴 것으로 보임
- 2016년 3척의 LNG선을 구하며 시장에 나섰다가 Knutsen OAS shipping과 1척(현대중공업 건조)만을 계약해, 시장이 실망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잔여 2척을 구하는 셈
- Endesa는 미국 Christi LNG로부터 2.25MTPA를 20년간 수입 예정
- >> 신조 발주로 연결되지는 않는 LNG 입찰입니다.

(10월3주) △ Endesa, LNGc 2호선 발주 준비

(06월4주) △ Knutsen, 스페인 Endesa LNG 옵션 기반으로 HHI에 LNG선 발주

▲ 2018년 LNG 정리: 21척 LNG선 발주로 마무리

- 브로커들의 정리에 따르면 올해 21척의 LNG 신조로 마무리 + Total 용선의 SCF, TMS Cardiff로 2척 추가될 수도: 이는 2016년의 8척에 비해 크게 회복
- 그 배경은 8기의 FSRU가 보탰기 때문: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수입 프로젝트와 BOOT 등
- Dynagas는 중국 후동중화에 2기를 미용선 발주
- LNG선 13척 중 소형 4척을 제외한 11척 중 미용선은 Flex LNG와 Maran Gas의 3척으로 집계
- 2018년은 올해보다 더 많은 LNG선 발주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업계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카고를 바탕으로 50척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함
- : 스페인의 Endesa, Gas Natural 등이 다소 빠른 프로젝트도 잡힘
- 또한 LNG 병커킹 등에서 소형 LNG선도 다수 필요할 것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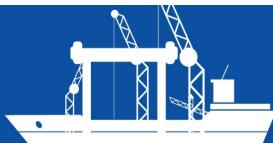
▷ 파키스탄 LNG 수입 터미널의 가스 유출, FSRU 때문 아님

- 파키스탄의 GasPort에 BW Offshore FSRU 수입터미널에서 가수유출이 발생해, 운영이 중단
- 그러나, FSRU나 subsea 파이프라인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밝혀짐: 다음주 재가동
- 국영 Pakistan LNG Terminal은 15년간 \$0.4177MBtu로 용선

▶ 기타

△ 그리스 Phoenix Energy, 현대중공업 건조 LPG선 건조 취소 → 현대중공업은 Exmar에 매각

- 현대중공업에 38k LPG선 두척을 2016년 3월 발주한 그리스 Phoenix Energy는 계약을 취소했고,
- 현대중공업은 이를 Exmar와 이태리 Carbofrollta에 매각: 신조 계약금액은 \$50m, 리세일 금액은 \$45m



한국 조선업 수주와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Unknown→Hyundai Vinashin, PTK(46k) 6척

- 알려지지 않은 수주: 무려 6척

@Kyklades Maritime→Hyundai HI (Ulsan), TK(319k) 2척

(12월1주) ▲ Kyklades → 현대중공업, VLCC 2+2, 12년만의 VLCC 시장 재진입

- 2005년 Maran에 VLCC를 매각하고 시장에서 빠졌던 Kyklades가 VLCC를 최대 4척 투자하며 시장에 다시 진입
- 현대중공업에 2019년말 인도로 319k 탱커 확정 2척 + 옵션 2척
- 최근 16.09~17.06 7척의 탱커를 매각하며 \$180m의 자금을 확보했고, 이번 신조선가는 \$81.5m으로 전해짐

@Central Shpg Monaco→Hyundai Samho HI, TK(158k) 2척

▲ Pistioli, 현대중공업에 수에즈막스 탱커 발주: 8년만

- 그리스 선주 Pistioli는 현대중공업에 수에즈막스 2척 + 옵션 2척을 발주: 8년만의 동선형 발주
- 해당 계약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될 예정이며, 신조선가는 \$60m 미만으로 전해짐: 선주는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숫자라고 언급
- 발주는 선주의 개인회사 Central Shipping Group을 통해 단행되었고,
- 인도는 2019년 중반으로 단납기인데, 타선주의 LOI 또는 옵션 포기를 잡은 것으로 보임: 현재 현대중공업 수에즈막스 신조는 2020년 인도가 가능

@Pantheon Tankers→STX SB (Jiniae), PTK(50k) 4척

@Unknown→STX SB (Jiniae), PTK(50k) 2척

- 알려지지 않은 수주

@Govt. of Tanzania→MASTEK HI, FERRY 2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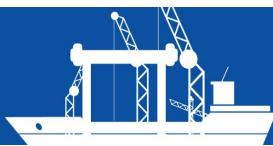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 Yang Ming의 13.5억\$ 컨선 20~24척 발주 프로젝트 시작

- 10,000TEU 10척과 2,400TEU feeder 10척~14척 발주 추진: 대만 CSBC, 한국 조선사들, 일본 이마바리, JMU 등과 협의 중
- 직발주 또는 용선발주 여부도 정해지지 않음
- 2,800TEU는 2020년 1부기 인도를 희망하며, NOx, SOx 배기 규제를 만족하는 선형으로, 척당 \$30m 안팎으로 알려짐
- Neo-Panamax의 스펙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는 없지만, 10,000TEU는 척당 \$95m에로 예상됨
- Yang Ming은 최근 20척의 컨테이너선 해체(Scrap) 의향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오보로 20척의 비싼 용선 선박을 교체할 것이라고 정정된 바 있음
- 해당 발주는 이에 따른 교체투자로 판단됨
- 2017년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정리하자면 CMA CGM의 22,000TEU 9척이 중국으로, MSC의 22,000TEU 11척은 한국 SHI, DSME로, EPS의 14,000TEU 8척과 Zodiac의 11,000TEU 5척은 현대중공업으로 발주되었고
- 소형 컨선은, CMA CGM의 3척, SITC의 2척 등, 총 30척이 중국 조선사로 발주됨

▲ HHIC(수빅), VLGC 2척 수주하면 대형 가스선 시장도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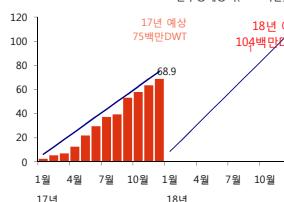
- 수빅은 Exmar로부터 VLGC 2척을 수주하며, Exmar로부터 38k LPG선을 건조한 다음, 대형 가스선 시장에도 진입
 - 현대중공업과 중국의 Jiangnan SY가 끝까지 경합했지만, HHIC가 \$70m의 싼 가격으로 수주 성공
 - 20일(수)에 Exmar는 VLGC 2척을 발주했다고 밝혔지만 조선사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아직도 현대중공업이 수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 이번 발주는 Statoil의 VLGC 용선 발주이며, Scrubber를 선택했지만 Dual Fuel로 업그레이드 옵션도 보유
 - Statoil은 LPG 추진선을 요구했지만, 엔진 제작사들은 2020년 전까지, LPG Engine의 디자인을 완성하지 못하다고 해, 어려울 전망
 - HHIC는 EXMAR로부터 38k LPG선 8척을 수주해 6척을 인도했고, 나머지 2척은 내년 3월, 5월 인도 예정
 - 한진중공업은 1995년 아시아 최초로, Membrane-type LNG선을 건조한 조선사
- >> 한진중공업의 역할은 중국보다 싼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중국을 견제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판단합니다.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전체상선 DWT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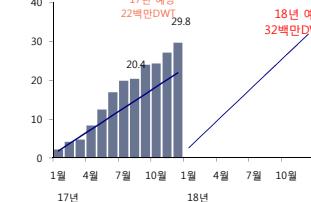
(컨선 전T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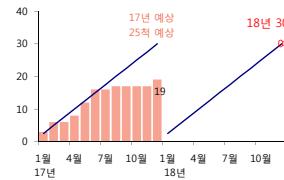
(밸크선 DWT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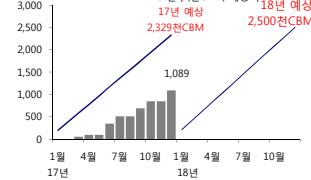
(탱커 DWT백만)



(LNG 취수)



(LPG 전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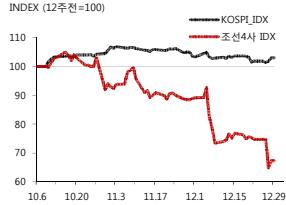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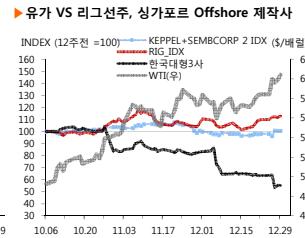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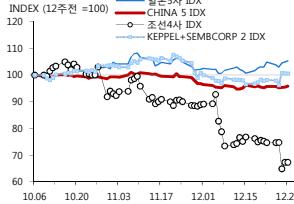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12월3주								
BIG6	Hyundai Mipo	17.6.1	Unknown	Unknown	PTK	50k DWT	2018	1
		17.1.1	Unknown	Unknown	PTK	50k DWT	2018	3
중국	Shanghai Waigaoqiao	17.12.19	북미	Foremost Maritime	BULK	208k DWT	2020	2
	Tianjin Xingang HI	17.12.20	중국	COSCO Qingdao	FERRY	1k Pass.	2019	1
중국	Tsuneishi Zhoushan	17.9.1	Unknown	Unknown	BULK	82k DWT	2019	2
	Fujian Mawei SB	17.12.14	중국	Quanzhou Ansheng	CONT	1k TEU	2019	4
	New Times SB	17.12.20	유럽	2020 Bulkers	BULK	208k DWT	2019~2020	2
	COSCO Dalian SY	17.12.20	중국	COSCO Shpg Spec	BULK	62k DWT	2019	1
	Fujian Southeast SB	17.12.14	중국	Quanzhou Ansheng	CONT	1k TEU	2019	4
	Nantong Xiangyu	17.12.14	중국	Quanzhou Ansheng	CONT	1k TEU	2019	4
	GSI Nansha	17.12.15	중국	COSCO Shpg Energy	PTK	110k DWT	2020~2021	2
					TK	114k DWT	2019~2020	3
					TK	65k DWT	2020	2
일본	Kawasaki HI Sakaide	17.12.19	Unknown	Phoenix Tankers	LPG	82k cu.m.	2019	1
	Kyokuyo Shipyard	17.7.1	아시아	TS Line	CONT	1k TEU	2019	2
17년12월4주								
BIG6	Hyundai Vinashin	17.7.21	Unknown	Unknown	PTK	46k DWT	2019	6
	Hyundai HI (Ulsan)	17.12.11	유럽	Kyklades Maritime	TK	319k DWT	2019	2
	Hyundai Samho HI	17.12.22	아프리카	Central Shpg Monaco	TK	158k DWT	2019	2
	STX SB (Jinhae)	17.9.7	유럽	Pantheon Tankers	PTK	50k DWT	2019	4
		17.7.20	Unknown	Unknown	PTK	50k DWT	2019	2
한국	MASTEK HI	17.12.27	아프리카	Govt. of Tanzania	FERRY		2019~2020	2
중국	Bohai Shipbld.	17.9.1	중국	RGL Shipping	BULK	208k DWT	2020	1
			Unknown	Berge Bull	BULK	208k DWT	2020	2
	COSCO Zhoushan	17.11.1	유럽	Aegean Shipping Mngr	BULK	82k DWT	2020	2
	Jiangsu New YZJ	17.11.1	유럽	Angelakos Hellas SA	BULK	82k DWT	2020	2
		17.9.1	유럽	Angelakos Hellas SA	BULK	82k DWT	2020	2
		14.12.21	Unknown	Unknown	BULK	37k DWT	2018	1
	Jinglu Shipyard	17.9.1	유럽	Laskaridis Shipping	BULK	82k DWT	2020	2
	Nantong COSCO KHI	17.12.29	유럽	Yasa Shpg. Industry	BULK	61k DWT	2019~2020	4
	Jiangsu New Hantong	17.11.1	유럽	Oldendorff Carriers	BULK	81k DWT	2019	2
	New Times SB	17.10.20	Unknown	Unknown	TK	158k DWT	2019	2
	Xiamen Shipbuilding	17.6.1	중국	Quanzhou Ansheng	CONT	2k TEU	2019	4
	Guangdong K-Link SB	15.12.26	중국	Guangxi Fengshun	BULK		2017	1
	COSCO HI Yangzhou	15.7.29	중국	COSCO Shipping Dev	CONT	14k TEU	2018	3
일본	Higaki Zosen	17.12.22	아시아	Glory Navigation Co	BULK	10k DWT	2019~2020	3
	Shin Kurushima	17.8.1	Unknown	Unknown	BULK	8k DWT	2019	1
	Honda Zosen K.K.	17.8.1	Unknown	Unknown	BULK	2k DWT	2018	1
	Kanda Zosensho	17.8.1	Unknown	Unknown	BULK	17k DWT	2019	2

Peer Group 등 Index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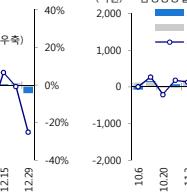


▶ 조선업 한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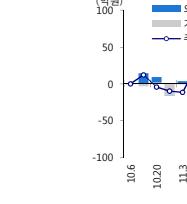


조선 수급

▶ 조선6사 수급



▶ 현대미포조선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더불어민주당 조선산업특별위원회 출범

<http://lnr.li/NenRW>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조선산업특별위원회는 2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

... 조선산업을 살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 서겠다며 현대중공업은 고용안정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

▶ 현대중공업 보도

▲ 기본급 동결" 현대중공업 노사, 2016-2017 임단협 잠정 합의

<http://lnr.li/6lVay>

기본급을 동결하고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중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016-2017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29일 도출

지난해 5월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만에 합의안을 마련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일부 직원의 기본급이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려는 것

신규 채용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

▲ 현대重, 볼스타 돌핀 4,300억에 팔았다

<http://lnr.li/7CerV>

선주사가 인수를 거부해 떠안은 시추선을 모두 처분하는 데 성공

: 노던드릴링(NODL)이 최근 현대중공업이 소유한 시추선 '볼스타 돌핀'을 4억달러(약 4,300억원)에 사들이는 옵션을 행사한다고 발표

지난 3월 현대삼호중공업이 시드릴사로부터 수주했다 계약취소 통보를 받은 반잠수식 시추선 1기를 노르웨이 해운사 시탱커에 3억7,000만달러를 받고 매각한 바 당시 시탱커는 현대중공업의 반잠수식추선 '볼스타 돌핀'을 2019년까지 인수할 수 있는 옵션도 함께 사들였는데 이번에 그 권리를 행사한 것

시탱커는 이번에 옵션 행사를 발표한 NODL의 지분 40%를 보유한 모회사

△ 현대오일뱅크 IPO 추진...현대중공업그룹 사업재편 마무리 돌입

<http://lnr.li/cvygZ>

현대로보티스는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로 91.1%의 지분을 보유

지난 3분기까지 매출 11조7000억원, 영업이익 8590억원을 기록

이번 현대오일뱅크 상장을 통해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사업구조 재편 및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

△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의 순환출자, 2018년 상반기내 해소 계획

<http://lnr.li/cvygZ>

내년 상반기 중 그룹 내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 역시 해소한다는 계획

▲ 현대오일뱅크, IPO로 '컨틴전시 플랜' 실행

<http://lnr.li/Fhx1>

현대오일뱅크 IPO는 현대중공업그룹이 2016년 6월 주채권은행에 제출한 자구안에 비상 대책(Contingency Plan)으로 포함된 내용

지난 3분기 말 기준 현대오일뱅크 지분 91.1%의 장부금액은 2조 9547억 원: 지분 100%의 가치가 약 3조 2400억 원인 셈인데, 다만 이는 5년 전에 평가된 가치 정유업계의 통상 EBITDA배수인 7~8배를 단순 적용하면 10조 원의 값: 시장에 내놓을 현대오일뱅크 지분은 최대 40%가 될 전망

△ 현대미포조선 세계 최대 LNG 추진 벌크선 그린 아이리스호 명명식

<http://lnr.li/OsIDV>

22일 울산 현대미포조선 제5안벽에서 열린 '세계 최대 LNG 추진 벌크선 그린 아이리스호 명명식' 개최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중공업 1.5조 증자 주관 '미래·한국·NH證'

<http://lnr.li/nPOZM>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선정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 발송 이후 지난 18~22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상태

작년 유상증자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가 공동 대표 주관이었으며 5개 증권사가 인수단으로 참

삼성중공업 최대주주는 삼성전자로 16.91%의 지분을 보유: 삼성생명과 삼성전기는 각각 3.24%와 2.29%를

△ 삼성중공업, 2천100억원 LNG선 수주..."올해 목표 초과달성"

<http://lnr.li/841p2>

해외 LNG(액화천연가스)선사로부터 18만m³급 LNG선 한 척을 약 2천100억 원에 수주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

이미 양측의 합의는 이뤄졌고, 공식 건조 계약도 올해 안에 체결될 예정

삼성중공업은 올해 모두 28척, 69억 달러어치 일감

연간 수주 목표(65억 달러)를 4억 달러 넘어서 실적

수주 실적을 선종별로 나눠보면 유조선 8척, 셔틀탱커 7척, 컨테이너선 6척, LNG선 5척(LNG-FSRU 2척 포함), ...

... 부유식 원유생산설비(FPU) 1척, 부유식 LNG 생산설비(FLNG) 1척 등

△ 허리띠 줄라매는 삼성중공업...연말연시 휴가로 270억원 절감

<http://lnr.li/0t2D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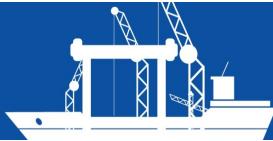
삼성중공업은 연말연시를 맞아 임직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임직원들도 이에 호응해 수천 명 단위로 휴가를 떠났거나 떠날 예정

관계자는 "업무 상황 등을 고려해 매주 1~2일 연차를 사용하고, 12월 마지막 주에는 대부분 휴가를 가는 분위기"라며 ...

... "이미 15일과 22일 약 2천 명의 임직원이 연차휴가를 썼다"고 전함

이뿐 아니라 26~29일 무려 4천 명 이상이 연말 휴가를 갈 계획이고, 이런 휴가 행렬은 설 연휴가 들어있는 내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

노동자협의회가 생산직 근로자 1인당 16일의 임차 사용을 약속하며 회사의 연차 독려 정책에 동참

**▶ 대우조선해양 보도****△ 대우조선해양, LNG 기술 시연회 개최**<http://lnr.li/Whp2s>

18일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에너지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자체 개발한 간접 열교환식 재기화 장치와 LNG 화물창인 '솔리더스(SOLIDUS)', '맥티브(MCTIB)' 시연회를 개최 글로벌 해운업계 및 에너지 관련사, 영국 Lloyd 등 해외 선급의 주요인사 80여명이 참석

▽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사내 조명탑 점거...단체교섭 부진<http://lnr.li/X0vq7>

노동조합이 18일 새벽 거제 옥포조선소 내 조명탑을 점거

노조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사측에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조명탑을 점거했다고 설명
또 선박 건조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을 골랐다고 덧붙임

▷ 대우조선, 9월 컨테이너선 수주 계약금 '7797억→7891억' 정정<http://lnr.li/JvQgb>

26일 기재정정 공시를 통해 지난 9월 수주한 유럽 지역 선주와의 컨테이너선 5척 계약자를 ...

... '유럽 지역 선주'에서 '유럽 및 아시아 지역 선주'로, 7797억원이었던 계약금을 7891억원으로 정정

▷ 대법, '5조원대 분식회계' 대우조선 고재호 징역 9년 확정<http://lnr.li/dxWD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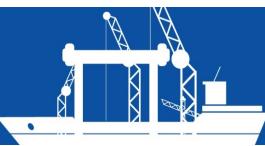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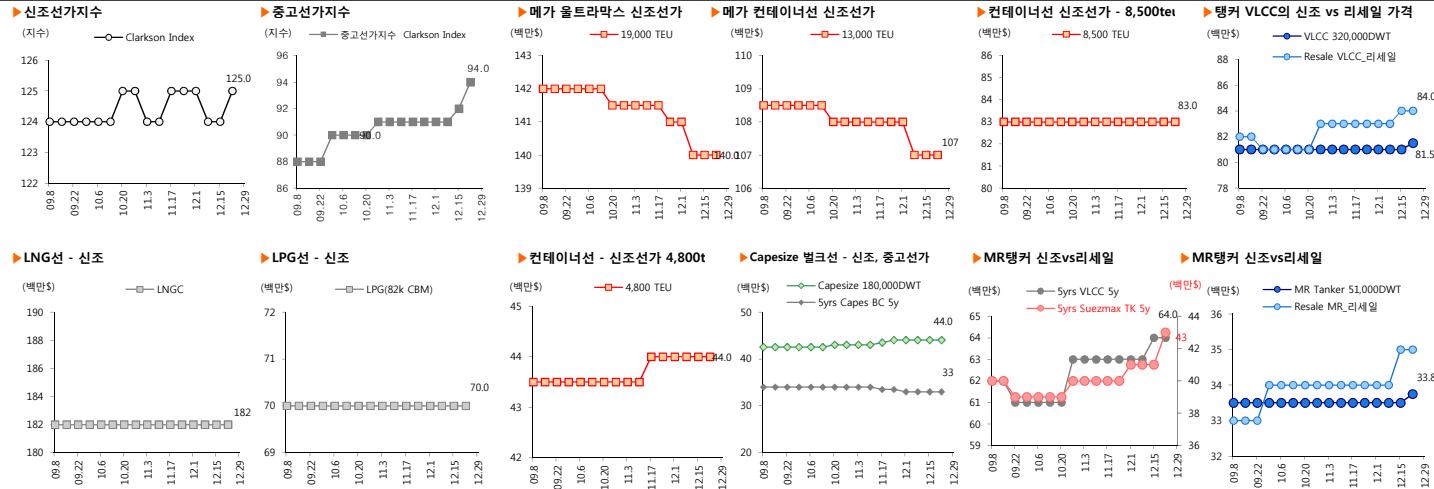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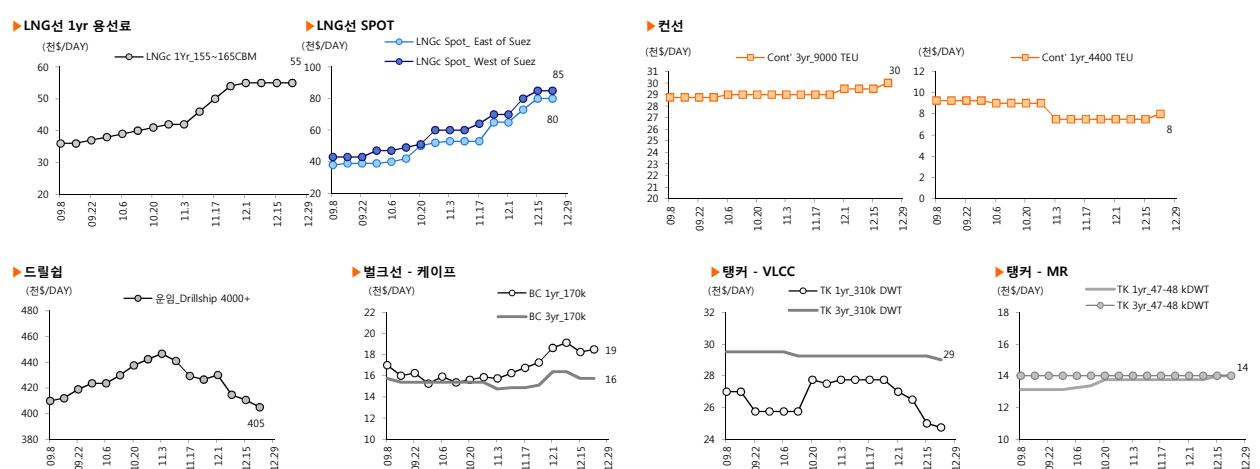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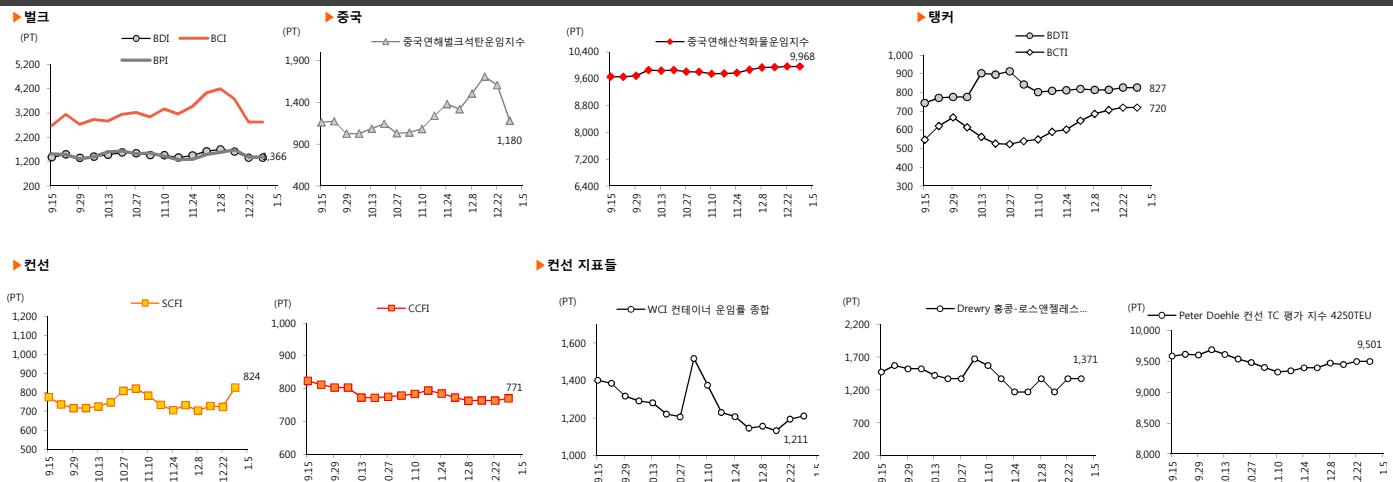
5조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이 징역 9년형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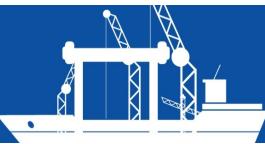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는 징역 6년이 확정

▶ 중소형 조선사**▷ 백운규 성동조선과 STX조선 방문, "산업적 측면도 구조조정에 반영"**<http://lnr.li/IMUjk>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조조정 중인 중소 조선사를 방문: 조선업 구조조정의 키를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어 산업부에서 이를 넘겨받겠다는 의지로 해석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구조조정을 산업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진과 노조, 지자체의 의견을 들은 뒤 "구조조정 시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조선해양플랜트산업협회는 중견조선사 구조조정 관련 외부 컨설팅 수행기관을 조만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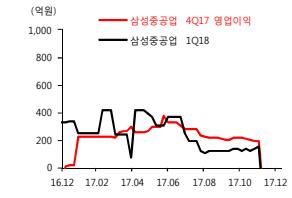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운임지수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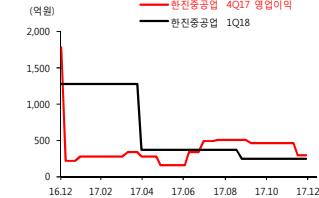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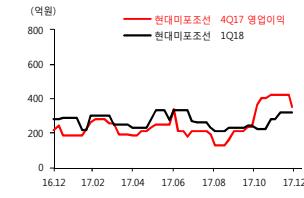
▶ 삼성중공업



▶ 한진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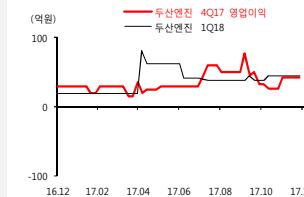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밥캣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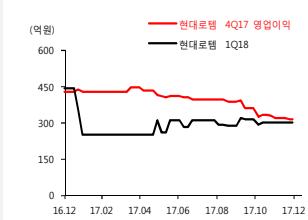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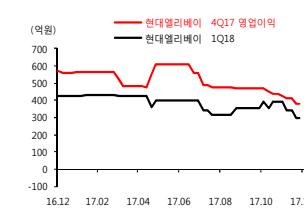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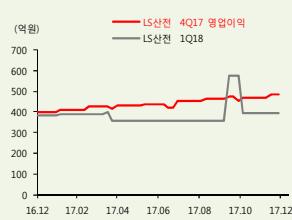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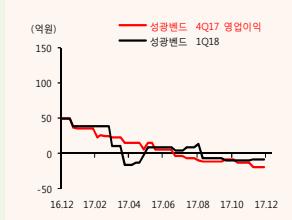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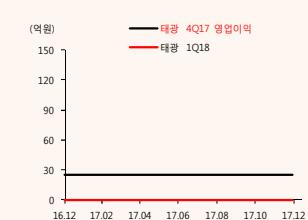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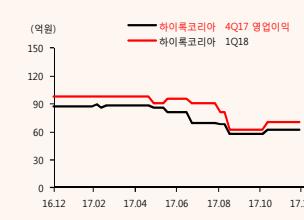
▶ 성광밴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2.02	17.12.09	17.12.16	17.12.23	17.12.28	2주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6,100	5,985	25,579	33,446	43,800	43,801	43,801	43,801	42,284	+26%	-3%	2.4	100,500
	삼성중공업	274	270	284	291	297	-693	-693	-761	-761	-761	-6%	-9.6	7,330
	현대미포조선	6,383	9,201	9,691	11,231	19,037	19,038	19,038	19,038	18,620	+66%	-2%	4.2	78,700
	한진중공업	-103	-289	-545	-883	-910	-910	-1,037	-1,037	-1,037	-1,037	-1,037	-3.2	3,310
두산	두산중공업	1,411	1,023	601	690	-563	-563	-563	-563	-563	-563	-563	-27.2	15,350
	두산인프라코어	829	878	888	925	990	990	990	990	990	-7%	0%	8.8	8,690
	두산에지	193	174	159	166	151	151	151	140	140	-15%	-7%	26.3	3,685
기계	현대건설기계	29,191	31,298	30,846	29,497	14,600	14,606	14,606	14,635	14,635	-	-	11.5	169,000
	현대일렉트릭	27,560	27,300	26,323	25,440	12,180	12,180	12,338	12,477	12,477	-	-	9.1	114,000
	LS산전	3,674	3,862	3,900	3,928	4,120	4,120	4,128	4,135	4,135	+5%	0%	15.7	65,100
	현대엘리베이	5,326	4,569	4,290	4,290	4,896	5,030	5,030	5,407	5,407	+26%	10%	10.1	54,400
방산	현대로템	614	523	469	419	421	421	421	421	421	-0%	0%	44.5	18,750
	한국항공우주	2,422	1,671	1,553	1,303	-642	-669	-669	-669	-669	-669	-669	-70.9	47,450
	한화테크윈	2,140	1,963	1,793	1,604	1,097	1,097	1,097	1,097	1,097	-32%	0%	32.4	35,550
피팅	LIG넥스원	3,619	4,651	4,664	4,747	2,544	2,544	2,140	2,140	2,140	-55%	-16%	27.9	59,800
	성광밴드	-75	-100	-148	-178	-288	-290	-290	-290	-290	-290	-290	-34.4	9,98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63.9	12,050
하이록코리아	하이록코리아	1,896	1,874	1,873	1,873	1,996	1,996	1,996	1,996	1,996	-7%	0%	11.3	2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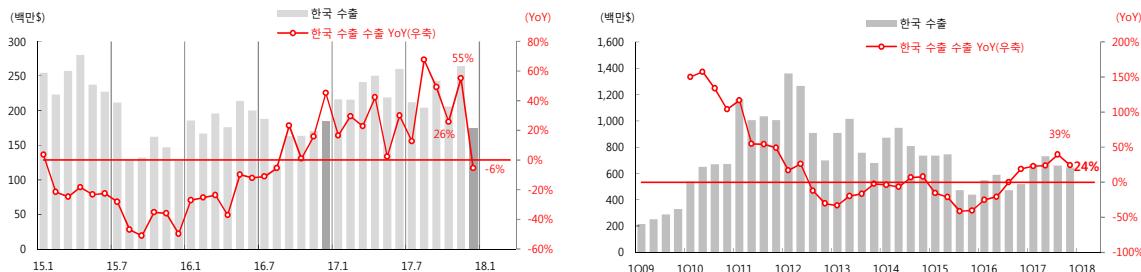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12.02	17.12.09	17.12.16	17.12.23	17.12.28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07,239	205,482	218,598	217,544	225,971	225,971	225,971	223,089	223,089	19%	0%	0.5
	삼성중공업	18,776	18,711	18,723	18,762	18,817	18,887	18,887	17,887	17,887	-4%	-2%	0.4
	현대미포조선	116,105	119,596	119,996	119,216	127,640	127,640	127,640	126,299	126,299	15%	3%	0.6
	한진중공업	8,833	8,616	8,330	8,025	8,025	7,983	7,983	8,522	8,522	-12%	0%	0.4
두산	두산중공업	30,765	30,126	30,126	30,609	29,412	29,412	29,412	29,412	29,412	-2%	5%	0.5
	두산인프라코어	10,622	10,616	10,987	10,768	10,502	10,502	10,502	10,501	10,501	9%	10%	0.8
	두산에지	7,920	7,956	7,893	7,784	7,821	7,821	7,821	7,809	7,809	2%	1%	0.5
기계	현대건설기계	231,665	232,512	267,992	282,415	112,672	113,662	113,662	113,662	113,662	13%	13%	1.5
	현대일렉트릭	232,450	225,780	242,828	247,744	108,862	108,862	104,726	100,467	100,467	12%	10%	1.1
	LS산전	38,938	39,086	39,113	39,360	39,624	39,624	39,624	39,621	39,637	10%	12%	0.0
	현대엘리베이	37,757	35,026	35,026	41,246	38,605	38,605	38,605	38,605	38,605	14%	14%	1.4
방산	현대로템	17,042	16,964	16,854	16,758	16,769	16,769	16,769	16,769	16,769	3%	5%	1.1
	한국항공우주	16,195	15,370	15,351	13,384	13,367	13,367	13,367	13,367	13,367	-5%	12%	3.5
	한화테크윈	45,502	45,425	45,013	44,672	44,061	44,061	44,061	44,061	44,061	2%	4%	0.8
피팅	LIG넥스원	31,296	32,210	32,229	32,395	30,100	30,100	29,812	29,812	29,812	7%	12%	2.0
	성광밴드	16,540	16,524	16,442	16,315	16,311	16,311	16,311	16,311	16,311	-2%	1%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7
하이록코리아	하이록코리아	23,849	23,849	23,800	23,800	23,947	23,947	23,947	23,947	23,947	8%	8%	0.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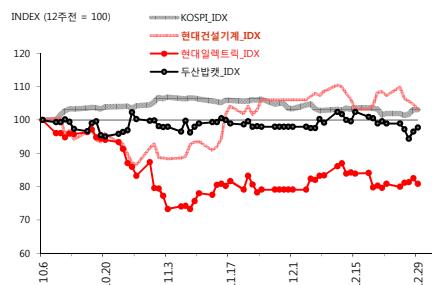
금주의 그림

▶ 17년 12월 한국 건설기계 수출 YoY -6%로 부진했지만, 10월~11월 좋았기에 3분기 전체는 +24%로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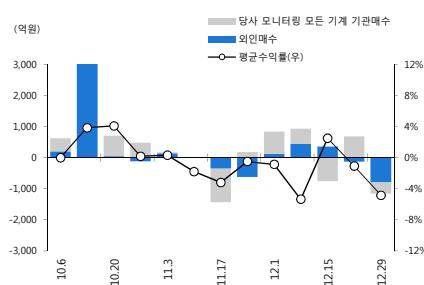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건설기계

△ 현대건설기계 이마트서 미니굴삭기 판매

<http://lnr.li/OdyOj>

오는 25일까지 미니굴삭기(1.7톤~3.5톤급·총 4대)를 전시·판매하는 마케팅행사를 진행

현대건설기계와 트레이더스는 그동안 전국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하던 굴삭기를 트레이더스 매장에 전시해 시민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

큰 기계들

▼ 두산중공업, A급 신용도 상실

<http://lnr.li/9t8Bmh>

신용등급이 BBB+로 하향조정: 차입부담이 여전히 과중한 수준에서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줄어든 점이 영향 NICE신용평가는 27일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을 기존의 A-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조정: 등급 전망은 '안정적'

앞서 한국신용평가는 26일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을 BBB+로 조정

▼ 두산엔진 20일 예비입찰...대형 PEF 불참 '홍행 빨간불'

<http://lnr.li/VPP40>

예비입찰에는 복수의 인수 희망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형사는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지 않을 예정

대형 기관들의 두산엔진 인수 검토 중단 배경은 조선업 경기가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

이밖에 두산엔진의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중국 기관들의 예비입찰 참여가 예상

인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것을 고려, 참여자들이 2000억 원을 밀드는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음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엔진 지분 42.66%의 시장가치(19일 종가 기준)는 1157억 원

두산중공업이 두산엔진을 낮은 가격에 팔기보다는 매각을 철회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

▼ 한신평, 두산엔진 신용등급 'BBB+'→'BBB' 강등

<http://lnr.li/xkeVt>

수주 부진으로 중장기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고 주주사 지원 가능성에 약화된 점을 반영

조선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는 지난해 4054억 원으로 연간 매출 절반 수준: 수주잔고는 2015년 말 2조 578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9884억 원으로 감소

▷ 현대엘리베이터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유상증자"

<http://lnr.li/i711e>

비상장 종속회사인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가 기타자금 414억 원 마련을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



△ 한진중공업 "944억원 해병부대 설계시공 낙찰자 선정"

<http://lnr.li/H1oR0>

'17-해병-○○부대 설계시공 일괄입찰'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7일 공시
발주처는 국군재정관리단이고 낙찰금액은 부가세 포함 944억원 수준

△ 한진중공업, 782억원 규모 춘천 아파트 건설공사 수주

<http://lnr.li/pvgo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782억원 규모의 춘천우두 B-2BL 아파트 2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29일 공시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 18일까지

△ 현대로템,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수주 유리한 고지 선점...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 창원공장 방문

<http://lnr.li/DcS2Z>

22일 업계에 따르면 루훗 빈사르 뺀자이딴 인도네시아 해양조정부장관을 단장으로 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지난 20일 최근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
이번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인도네시아 방문기간 중 체결한 19억\$의 교통인프라 협력 양해각서(MOU)과 관련된 후속 조치
이에 따라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에 이어 2·3단계 신규 수주가 기대
현대로템은 지난 2월 자카르타 주 정부 토지개발공사에서 발주한 경전철 16량 사업을 수주: 이 경전철은 2018년8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 투입될 2단계 사업은 1단계(선수촌~경기장 5.8km)보다 전체 연장이 3배 정도 더 길며 1단계 16량(계약금액 3300만 달러)을 포함해 최대 110량 규모의 차량 발주가 내년 2월까지 옵션이 발효되면 2단계 사업 경전철 차량을 바로 수주

△ 현대로템, 현대제철과 계약금액 1882억→2299억원으로 정정

<http://lnr.li/OwIFV>

현대제철과 맺은 당진 1, 2소결 배가스청정설비 신규제작·설치 관련 계약 금액이 1882억원에서 2299억원으로 변경됐다고 22일 공시
최근 매출액대비 7.7%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기간은 오는 2019년 11월30일까지

△ 현대로템 신형 KTX 평창 달린다

<http://lnr.li/BBYJD>

21일 경강선 개통식을 열고 22일부터 영업운행을 할 예정: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3월 경강선 KTX 150량을 수주해 지난 9월 최종 편성까지 납품을 끝냄

작은 기계들

△ 성광밴드, 주당 100원 현금배당

<http://lnr.li/tRW8M>

결산배당으로 주당 100원을 현금배당한다고 26일 공시, 배당금 총액은 27억9285만원이고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

▷ 와이저-원, 52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http://lnr.li/hm9tZ>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51억5205만8700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
38만5922주를 제3자배정증자 방식으로 발행

△ 한국카본,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에 LNG선용 자재 공급

<http://lnr.li/X7wCM>

한국카본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용 초저온 보냉자재를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22일 공시
삼성중공업과의 계약금액은 108억원, 현대중공업과의 계약 금액은 214억원
각각 작년 매출액의 4.19%, 8.29%에 해당

△ 유니슨, 원엔피와 21억 규모 풍력발전타워 공급계약 체결

<http://lnr.li/Wii2U>

이는 작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계약기간은 내년 9월27일까지

△ 유니슨, 계열사 원엔피와 30억 규모 풍력발전타워 공급계약

<http://lnr.li/lbgki>

27일 계열사인 원엔피와 3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공시
지난 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5.8%에 해당: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14일까지

△ 유니슨·포스코, 해상풍력 기술협력 MOU 체결

<http://lnr.li/S5BCQ>

MOU는 유니슨이 개발하고 있는 4.2MW 풍력발전기용 자켓 하부구조(Substructure) 관련 설계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
해상풍력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또는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까지 포함
유니슨은 내년 1분기까지 4.2MW급 'U136 육해상 공용 풍력발전기' 개발을 완료하고 ...
... 국내외 인증을 거쳐 2019년부터 육상은 물론 해상프로젝트까지 본 발전기를 납품할 계획

△ 씨에스원드, 126억원 규모 원드타워 공급계약 체결

<http://lnr.li/2k2z>

센비온 원드 에너지(Senvion Wind Energy)와 125억7808만원 규모의 원드타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
최근 매출액의 4.04%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계약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 씨에스원드캐나다, 씨에스레일 흡수합병

<http://lnr.li/oJfjk>

종속회사인 씨에스원드캐나다(CS Wind Canada)가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체 씨에스레일(CS Rail)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
씨에스원드의 100% 자회사 간 합병으로, 합병비율은 1대 0: 합병목적은 자회사 간 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손익구조 개선이라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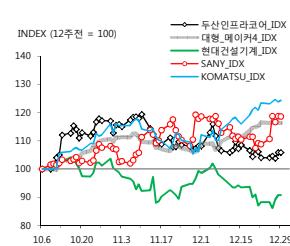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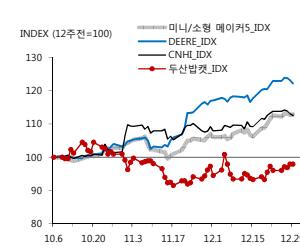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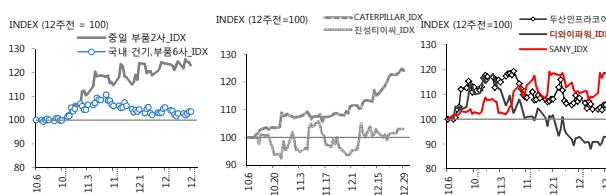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쓰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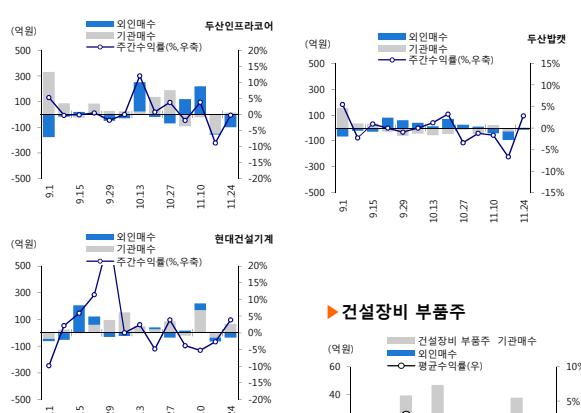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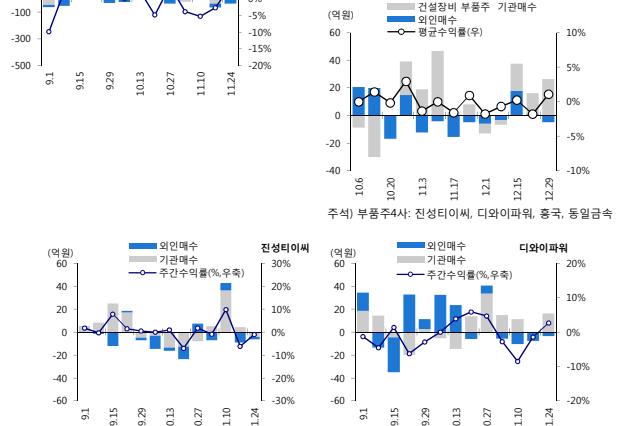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 건설장비 메이커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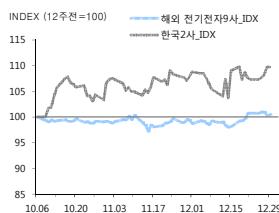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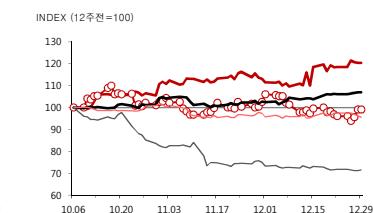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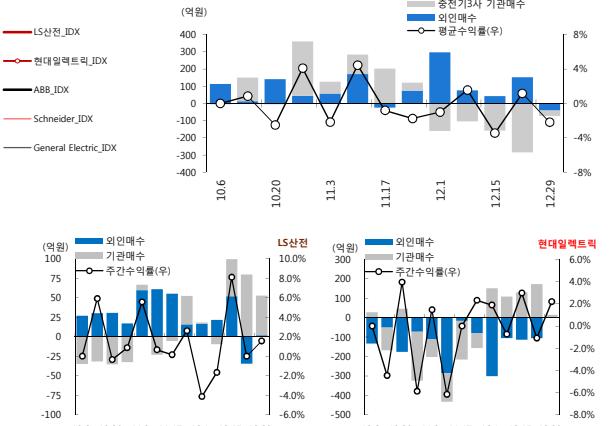


▶ 중전기 회사들 주가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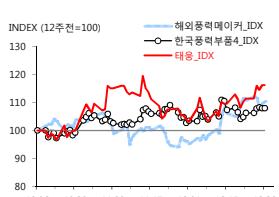
중전기 수급

▶ 중전기3사(현대일렉트릭, LS산전, 효성)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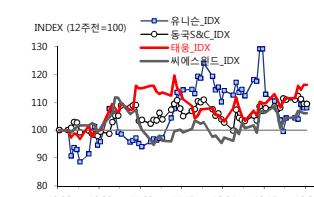


풍력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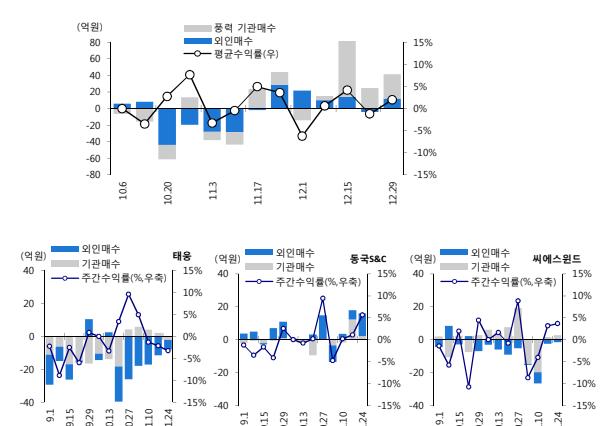


▶ 한국 풍력부품5사



풍력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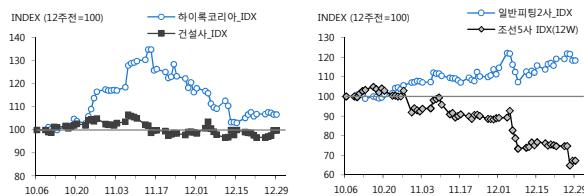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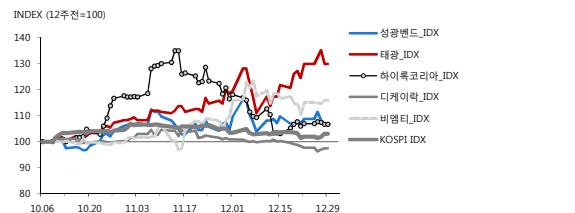


피팅

▶ 피팅 VS 전방1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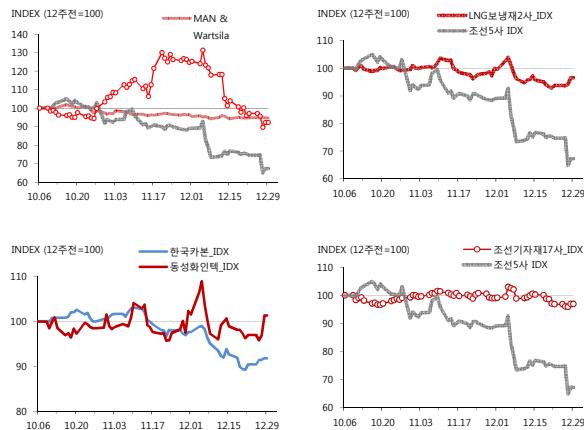


▶ 피팅 및 벨브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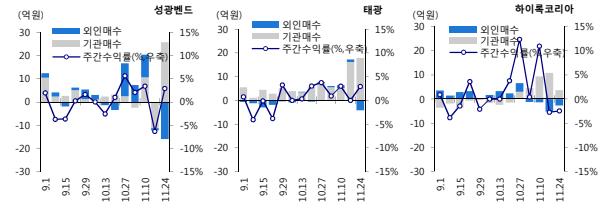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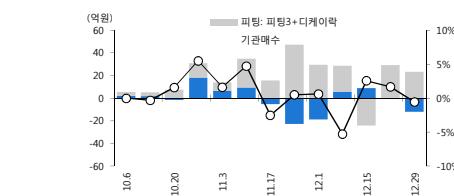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 엔진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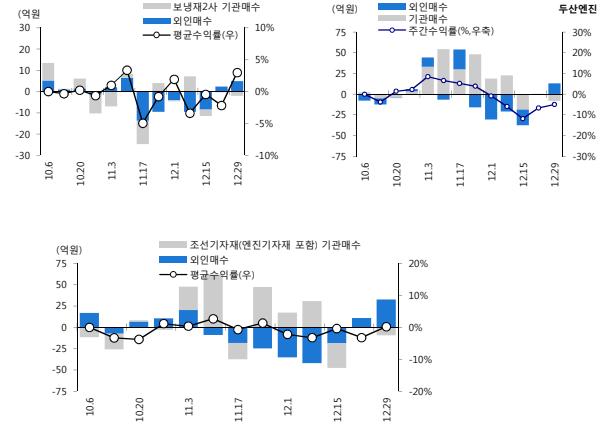


피팅업 수급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제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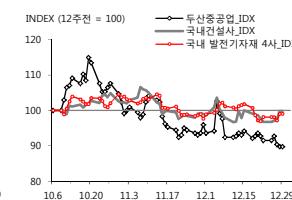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발전업 수급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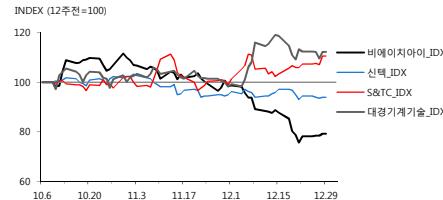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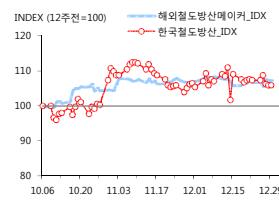
주석) 비에이치아이, S&TC, 한솔신팩,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 발전기자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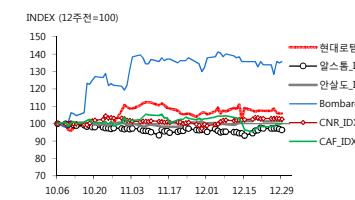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철도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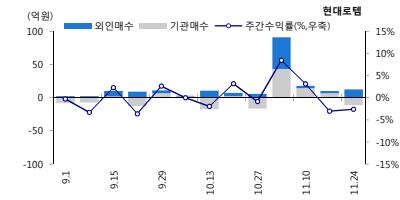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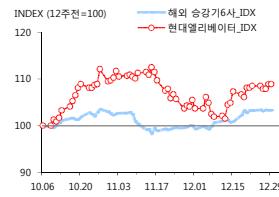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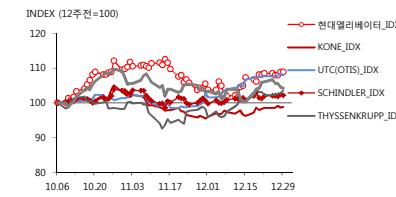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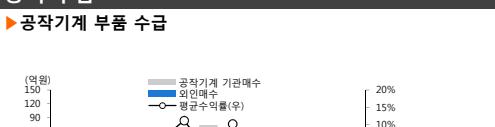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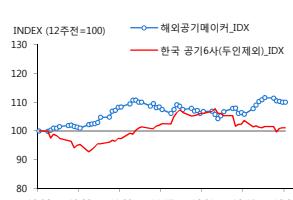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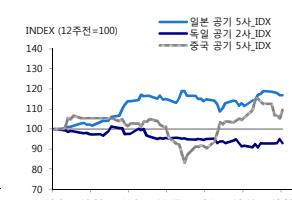


공작기계

▶ 한국소형6사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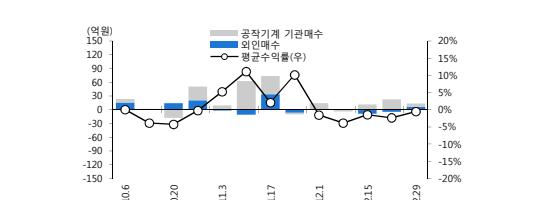


▶ Global Peer - 지역별



▶ 공기 수급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시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최광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거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불법발행시 법적 책임이 있을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주천 투자등급 (주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주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주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주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Sell(매도): 주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주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주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율 등급 공시 2017-12-31 기준

구분	매수	증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3.1 %	6.9 %	-